

# 2002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성대히 마무리하다

## 많은 참여와 뜨거운 호응으로 2003년에도 기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는 '2002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가 지난 한 해 동안 16개 시도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 설명회는 사회 구조의 급변에 따른 여성의 사회 참여 증대와 사회 한 축으로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여성 인력의 육성을 목표로, 주체가 되는 여성들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21세기 여성들이 발명을 통해 대안적인 직업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2년 한 해 동안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순천시, 포항시, 천안시, 대구광역시, 서울시, 제주도, 창원시, 평택시, 성남시, 한양대학교, 숭실대학교 등에서 열렸으며, 그 동안 약 2,500여명의 여성들이 참여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지난 12월에는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 숭실대학교, 한양대학교, 평택시, 성남시 등 6개의 설명회가 열려 2002년 설명회를 마무리 지었다. 학교를 중심으로 개최된 12월의 설명회에는 자녀들의 창의력 지도에 관심이 높은 많은 어머니들이 참여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들을 지도하고 가정을 훌륭히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많은 여성들의 호응과 관심 속에 치러진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는 2003년에도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며, 여성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져 자녀들을 발명 꿈나무로 키우는 여성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창조적 선진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 지난 12월 13일 성남시 낙생고등학교에서 열린 '성남시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에서 한국여성발명협회 황소현 회장의 개회사 모습.



▲ 지난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콩나물 기르기'로 어머니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수도공업고등학교 김근성 교사의 모습.



▲ 발명계에서 유명한 윤선희 교수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한양대학교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지난 12월 21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 미니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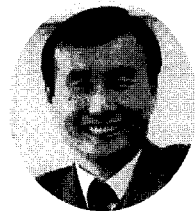
#### “창의력이 높아지는 자녀를 위해”

유현주(학부모)

낙생고등학교 1학년 오현경 학생의 어머니인 유현주씨를 12월 13일 낙생고등학교 설명회에서 만났다.

자녀의 창의력 성장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녀는 설명회 내내 반짝이는 눈빛으로 강의를 경청했다.

발명교실에 보낸 후부터 아이가 높은 상상력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이곳 설명회에 참석했다는 그녀는 “어머니들이 발명한 물건들이 많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발명품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설명회가 많아져 지식재산권을 쌓아가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 “이번 설명회가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길”

서재홍(낙생고등학교 발명교실 교사)

낙생고등학교의 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서재홍 교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재산보다 지식재산의 비중이 가장 높아지는 그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설명회 개최를 통해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어머니들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명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녀들을 지도하는 또 하나의 축인 어머니들이 생활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시니까요.

발명교육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교교육은 정답을 맞춰가는 것이지요. 물론 학교교육이 없으면 안되지만 발명교육은 학교교육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해주고 생각하는 방법을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들이 할 일을 발견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발명교육입니다.

### 생활속의 발명

#### ‘콩나물 기르기’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 열린 ‘윤중초등학교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에서 한국학교발명협회 부회장이자 서울수도공업고등학교 발명교실의 김근성 교사는 ‘콩나물 기르기’를 통해 발명의 실체를 터득할 수 있는 기법을 소개했다.

#### ◎ 목표

콩나물 재배기의 개발 과정과 콩나물 기르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발명의 실체를 터득할 수 있다.

#### ◎ 준비물

콩나물 콩 100g, 우유팩 빈 것 (1000ml), 헌 스타킹 한 쪽, 컵라면 그릇 1개

#### ◎ 활동

##### 1 콩나물 시루 만들기

① 우유팩을 씻은 후 엮어놓고 밑바닥 네모진 면에 3~4cm의 길이로 삼자 모양의 칼자국을 낸다.

② 헌 스타킹을 30cm 정도로 길게 자른 후 끝을 홀매쳐서 자루 모양으로 만든다.

③ 우유팩을 바로 세운 다음 스타킹을 팩 안에 넣고 쓰레기통에 비닐봉지를 끼우듯이 스타킹을 우유팩 입구에 씌운다.

④ 컵라면 그릇을 깨끗이 씻어 우유팩 위에 거꾸로 씌우면 콩나물 시루의 뚜껑이 된다. 이 뚜껑은 시루에 물을 줄 때만 열고 항상 덮어두어야 한다.

##### 2 콩나물 기르기

① 콩 100g 속에서 썩은 것과 병든 것, 쭈글쭈글한 것들을 골라내어 물에 씻은 후 5시간 동안 물에 불린다.

② 다 불린 콩을 우유팩 안의 스타킹 안에 넣고 컵라면 용기로 덮어둔다.

③ 주방의 싱크대나 목욕탕과 같이 바닥으로 물이 잘 빠지는 곳에 두고 하루에 3~5번씩 물을 부어준다.

④ 시작한 지 6일이 되면 콩나물이 많이 자라서 스타킹 자루와 우유팩이 볼록해진다. 콩나물 길이가 7~8cm 될 때가 맛이 가장 좋다.

#### ◎ 주의사항

콩나물은 건조한 것과 햇빛과 바람을 싫어한다. 그래서 밝은 창가보다는 어두운 주방이나 목욕탕 같은 곳에서 기르고 시루에는 항상 뚜껑을 씌워서 건조함을 방지해 주어야 한다.

